**오모리 은광 중요 전통적 건조물군 보존지구**

1603년 적대 관계에 있었던 대부분의 무장을 정복한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는 1867년까지 일본을 통치하게 되는 도쿠가와 막부를 수립했습니다. 이와미 은광이 도쿠가와 막부의 지배 하에 놓이고 은광 기슭에 자리한 오모리 지구에 실무를 담당하는 다이칸쇼(막부의 직할령을 관리하는 관청)가 설치되면서 오모리 마을은 이와미 은광의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로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다이칸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인들과 무사들이 이주해 오면서 다이칸쇼 주변에 마을이 형성되었고, 그에 따라 더욱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며 마을의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다양한 거리 경관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급격한 발전을 이룬 오모리에는 무사, 상인, 서민들의 집, 그리고 사찰과 신사가 기묘하게 뒤섞인 구조의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사회 계급에 따라 인접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당시 일본에서는 매우 드문 형태였습니다. 마을은 1800년에 발생한 화재로 대부분 소실되었지만, 이 패치워크 모양의 구획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오모리의 특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을 안을 걷다보면 대부분의 상점과 공동 주택(나가야, 칸을 막아서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길게 만든 집)은 큰 길과 바로 접해있는 반면, 무가 저택에는 가옥과 도로 사이에 담장으로 둘러싸인 정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도 시대(1603~1867)에 정원은 신분을 상징하는 표식이자 실용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정원 내부에 작은 건물을 짓고 임대를 통해 수입을 얻는 집도 있었습니다.

붉은 기와와 매화나무

오모리는 마을 내 많은 집들의 지붕에 붉은 기와가 사용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지역의 철분이 다량 함유된 점토로 만들어진 세키슈 기와(세키슈는 이와미 지역의 다른 이름)는 이 마을이 자리한 시마네현을 포함해 주고쿠 지역에서 흔하게 사용됩니다. 반면, 무가 저택이나 행정 시설로 이용된 비교적 큰 규모의 건물에는 주로 회색 기와가 사용됩니다. 높은 곳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면 큰 건물은 대부분 지붕이 회색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서민들의 집과 차별성을 둔 회색 기와는 권력의 상징으로서 무사 계급에게 특히 선호되었습니다. 마을의 경관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매화나무입니다. 그 대부분은 은광이 번영했던 시대에 심겨진 것입니다. 광부들은 우메보시(매실장아찌) 속의 구연산이 분진이 날리는 갱도 속에서 의식을 청명하게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다고 믿고 방진 마스크 속에 우메보시를 끼워 넣었다고 합니다.

현재의 오모리

오모리 마을은 역사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된 곳이지만 오래된 건물들 중 일부는 새로운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도 시대의 농가를 매점이나 카페, 갤러리로 리뉴얼한 군겐도가 그 좋은 예입니다. 이곳에서는 의류, 지역 먹거리를 구입하거나 수공예품을 구경하고 앉아서 정원을 바라보며 런치나 간단한 식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모리는 주민들의 프라이버시와 생활이 존중되는 한 기쁜 마음으로 방문객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마을입니다. 함부로 주택 부지 안에 들어가거나 허가 없이 주민들의 사진을 찍는 행위는 삼가 주십시오.